

장지현 정사 황해도 성불사 참배기 본지 단독입수

“풍경소리 언제 다시 들을까”

지난 연말,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의 짧은 일정으로 북한에 다녀왔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상임부회장으로서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북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북한 내에 불교계 명의의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뜻밖에도 이번 방북에서 나는 분단 이후 남측 불자로서는 최초로 꿈에도 그리던 황해도 성불사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가곡 ‘성불사의 밤’으로 알려진 성불사(북한 국보유적 87호) 극락전. 응진전과 함께 6·25때 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된 것을 보수했다. 좌우로 담간지주가 서있고, 앞의 5층석탑은 국보유적 제279호로 지정됐다.

배어난 경관에 詩心 일어

성불사는 가곡 ‘성불사의 밤’으로 널리 알려진 바로 그 절이다. 북한은 성불사를 국보유적 87호로 지정 보존하고 있다. 평양을 떠나기 하루 전인 12월29일 불교도연맹측의 배려로 불려온 달려간 성불사는 황해북도 사리원 시내에서 8km 떨어진 정방산, 정방산성 내에 고즈넉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란중 불탄 극락·응진전 최근 복원 “국수공장 가동되면 부처님께 첫 공양”

일요일임에도 하천 보수작업과 농경지 정비작업으로 동원된 군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으며 성불사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경. 성불사에 도착해서 내가 제일 먼저 가진 느낌은 ‘이렇게 아름다운 절을 왜 이제야 보여주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문은 배어난 주변 경관이 최근에서야 유입지로 다듬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내 풀리고 말았다.

성불사는 과연 가곡 ‘성불사의 밤’이 아니더라도 이 골짜기에 드는 운수남쪽이라면 누구든지 시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아름답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도량이었다. 일주문을 대신한 산성문(山城門)이 그려지며, 역사와 이계가 완연한 정방산성이 다칠새라 사암을 꼭 품에 보듬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겨울철이라 지금은 물줄기가 말라붙었지만 극락전 정면에 위치한 정방폭포는 통일을 고대하는 부처님의 시름을 달래주기에 한여름에는 제격일 듯 싶었고, 한때 일 객정이 기거했다는 산성 동굴은 절 뒷편에서 금방이라도 턱수염의 장수가 뛰어 나올 것처럼 그 경사가 다급하게 보였다.



◇성불사 일주문. 북한은 2~3년전 진입로 주변에 횡집 뉴시터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관광지로 복원했다.

‘주승도, 그윽한 풍경소리’도 지금은 간곳이 없는 성불사에서 50년 만에 찾아온 귀하디 귀한 남쪽 손님들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안내원도 관리인도 아닌 달구지를 끄는 한미리 소였다. 수레가 너무 무거웠는지 절 입구에서 길을 가로막고 넘어져 있던 소는 그 절에 머물던 어느 식물의 후생이었을까. 그는 잠시 낯선 이방



◇성불사의 목어. 낫바렌 단청이 천년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인을 주시하며 큰 눈을 깜박이더니 곧 방문객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다.

주승도 객승도 간곳 없어

성불사는 주승도 객승도 살지 않아 온전한 신앙행위는 인정치 않지만 문화유적만큼은 제대로 보존하려는 북측 당국에 의해 그 외형만 큼은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사리원에서 올라온 문화유적관리소 유용철이라는 조사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극락전과 응진전 일부는 전쟁시기에 지붕이 불타고 그을린 것을 새로 장엄했고, 응진전 외벽의 태화는 최근 새로 그려넣었다는 데 힘찬 모습이 예의 역동적이었다. 극락전 앞의 두 개의 담간지주, 그리고 역시 국보유적인 5층석탑은 중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쪽에서 인정하는 한 종단의 정규 교역자로서 해외에서 전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도량의 외형 못지않게 법당 내부의 부처님 안부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극락전과 응진전의 법당을 잇따라 참배한 불자로서는 참으로 가슴

이 미어질 듯이 어려웠다. 훗날은 고사하고 정등도 들어오지 않는 법당, 오십년 동안 공양 한번 받지 못하고 절 한번 받지 못한 부처님전에 외부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은 불제자를 굽어보는 성불사 부처님의 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항불 하나 갖지 못하고 어둠 속의 부처님을 친견하는 불제자의 등뒤로 싸이한 골짜기에서 시린 물소리를 깨고 있었다.

50년간 공양 못받은 부처님

어둠이 깃든 성불사 골짜기를 빠져 나오면서 이번에 우리 불자들이 원력을 모아 설립한 국수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먼저 국수 한그릇을 성불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이내 수심에 잠기고 말았다. 통일은 어서 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사슬에 묶인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식물을 전폐하실 성불사 부처님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남과 북의 불자들이여! 통일의 새 날을 고대하자. 우리에게 뿌리깊은 역사의 절간 인연이 있는 한 또 다시 내일의 새로운 연(緣)은 싹트고 꽃필 것이다.

신행수기 당선작

(대상)

자등명 범등명①

나는 1남1녀의 자녀를 둔 49세의 주부다. 더불어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5명 남짓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지금의 내가 있기 전, 나는 남편의 교통사고와 운영해 오던 의상실의 경기 침체, 뒤늦게 배운 미용기술의 거듭되는 남매로 계속된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알콜 중독자라는 부끄러운 명예를 쓰고 살았다. 또 실상가상으로 걸친 갑상선 합병증 등의 병마와 싸우며 수년간 망연자실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한 때의 수렁에서 스스로 헤쳐 나올수 있었던 것은 분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터다. 그동안 참회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의 몸을 빌어 절에 다니는 것 같다. 불교가 모태 신앙인 셈이다. 해화동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만난 남편과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절에 다녀왔던 그것은 오로지 기복적인 신앙 행위였다.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주체적인 신앙심 없이 우리 집,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저 기도하고 경을 외웠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기적이기 그지 없지만 당시 나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다.

결혼 전부터 해화동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사치와 술에 젖어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나는 남편을 만나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화사한 불남도 잠깐, 서서히 불행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의 농음으로 속상해 하고 있을 때 빌려준 돈을 사기 당했고 일천대 달친 격으로 그동안 내가 붓고 있던 게 미처 깨져 나뉘를 봤다. 불행이 연이어 닥쳐오자 나는 다시 알콜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었고, 의상실과 가정은 엉망이 되었다.

그때도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고자 해화동에서 독산동으로 이사를 했다. 의상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기의 불부림을 치는 동안 10여년의 세월 속에 남매를 두었고 남편은 해외취업을 나갔다. 그즈음 독산동 범성사 스님의 도움으로 집을 사게 되었다. 갖은 사고와 실패로 집을 살 형편은 아니었지만 스님 말씀만 믿고 전세대신 신원동에 연립주택을 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미용실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다.

연립 베란다에 ‘여원의의상실’ 간판을 달고 양장점을 하면서 금강사 스님을 뵈게 되었다. 무려한 집 마련에 남편도 없이 함겨워 하는 나에게 스님께서는 평생의 업 때문이니 전생의 빚을 갚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원망심에서 벗어나 관세음보살기도로 업을 닦으라고 용기를 주셨다. 또 수계법회에서 ‘범등명’이라는 불명도 주셨다.

스님의 따사로운 격려와 함께 불명을 받고 보니 마음속엔 환희심이 서서히 일었다. ‘모두 내 탓이다. 내 업이구나. 어제의 모든 것 이젠 다 잊어 버려라. 다시 시작하자. 나로 인하여 태어난 저 남매에게 부모의 책임을 다 하지’며 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기성복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상실 운영이 순탄치 못하면서 또 다시 시련이 다가왔다.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해외가족 북해를 받으며 독산동 부처복지관을 다녔다. 뒤늦게 시작한 일이라 여러번 포기하고 싶었을 만큼 힘들게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의 가르침 대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보냈다. 그렇게 인내하는 사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 39세에 미용실을 개업해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용실 개업초기, 미용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갈 즈음 남편이 4년만에 귀국했다. 남편은 다시 해외로 나가



그림 · 이준석

교통사고·알콜중독등 집안엔 우환의 연속 한때 개종마저 생각

잘 알고 택시회사에 취직해 영업용택시를 팔았다. 그것이 불행의 화근이었다. 계속 이어지는 남편의 교통사고는 내 마음을 흔들었고, 새로운 분출구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개종에 대한 유혹이 가장 먼저 마구니로 다가왔다. 필실의 의지할 때가 필요했던 나는 불통 등쳐다지며 도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형제자매가 되어주는 그들(기독교 신자들)의 혜택(?)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 바로 남편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눈 속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를 시켜야 할 지경이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남편과 손님은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항상 남편과 같이 있던 차에 걸린 영주 때문이었을지, 사고현장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운이 좋다며 입을 모았다. 남편이 7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두 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 나는 매일같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스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도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장사속으로 잠시나마 타종교로 개종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던 나의 어리석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내게 어떤 계침을 주시기를 위해 남편을 실려 주셨다는 것을...

이태순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 - 효성중공업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를 제공하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성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본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사업부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인목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ttp://www.hico.co.kr